

“남편·이들 보내고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영암 교통사고 참변’ 안타까운 사연들

중손주 볼 생일 앞두고...자식들에 의지 않으려 발일 나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 떠나다니” 나주 흥덕리 주민들 침통

2일 오전 방문한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는 침울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전날 발생한 영암 버스사고로 주민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한가득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안타까움과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모(75) 할머니는 “지난달 7일 마을에서 버스를 빌려 마을 할머니들과 단체로 서울나들이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여행이었다”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다른 할머니들은 “자신들도 평소 사고 버스를 타고 발일을 다녔다”며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김모(79) 할머니는 “노인들이 돈이 필요해 봐야 얼마나 필요했나”면서 “곧 어린이날이니까 손주를 용돈 좀 더 주려고, 돈 만원이라도 더 벌 생각에 발일을 나가는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사고를 당한 주민들이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일당으로 6만원(교통비 제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중 최고령인 김모(84) 할머니는 생일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해 얻은 증손자를 보는 낙에 살았던 김 할머니는 원래 다음달이 생일이지만,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어린이날(5일)을 일부러 택해 생일을 미리

지내기로 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김 할머니가 지난 서울 나들이 때 ‘생전 처음 서울에 가본다’며 수줍게 파마를 하는 등 치장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함께 세상을 떠난 주민 중 유일하게 50대였던 김모(여·59)씨의 사연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씨는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몇 년 전 큰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다.

장성한 둘째 아들이 있긴 하지만 직업이 없는 탓에 그동안 김씨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다고 한다.

김씨는 사고 당일인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공공근로사업이 쉬게 되자, 마을 할머니들과 영암의 한 농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했다.

평소 마을주민들과 잘 어울렸던 문모(75) 할머니의 사연도 주변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잉꼬부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편과 단둘이서 다정하게 살아온 문 할머니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의지하지 않다가 발일을 자주 다녔다고 한다.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문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에게 밥을 차려드린 뒤 마을 어르신들과 일을 나가시곤 했다”며 눈물을 삼켰다.

【나주=김한영기자 young@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일 영암군 덕진면의 한 견인소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미니버스를 감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 달군 ‘무자비한 집단폭행’

광주 피해자 가족이 공개...“대소변도 못가리고 실명 위기”
누리꾼들 댓글 달며 분노 빚발...경찰, 3명 영장·4명 입건

광주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남성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동생의 집단 폭행당한 얼굴과 명자국이 가득한 팔. /연합뉴스

A(36)씨는 2일 ‘광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는 제목을 통해 페이스북에 피투성이가 된 채 명자국이 가득한 자신의 동생 B(33)씨의 얼굴 사진 등 총 4장의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글을 통해 “지난 30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시 공산구 수완동의 한 인도에서 친동생이 조직 폭력배가 낀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면서 “한번씩 물어주시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집단 폭행을 당한 동생이 현재 대소변도 가리기 힘든 상태이며, 실명 위기”라면서 “상대측 남성들이 동생을 도로 건너편 폴수에 쓰러뜨려 놓고 큰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하려던 B씨의 친구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남성 7명, 여성 3명이 함께 있던 무리와 시비가 붙었으며, B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1000여개 이상의 댓글을 달는 등 분노를 나타냈다.

한 누리꾼이 피해자 형이 SNS에 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한번씩만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리자 이날 오후 7시 현재 1만70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2일 광주경찰청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행 피해가 대부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블랙박스 보니 미니버스 충돌 전 ‘갈지자 운행’

영암교통사고 합동 현장 조사

무허가 영업 상관없이 보험 적용

유족 “노동력 착취 의혹 밝혀달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암 미니버스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합동 조사가 2일 영암군 신북면 사고 지점에서 실시됐다.

경찰이 확보한 미니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버스가 1차로에서 2차로 SUV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SUV에 근접할 시점에서 차선을 여러차례 바꾸며 ‘갈지자 운행’을 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1차로로 주행하던 버스는 2차로로 가던 SUV 쪽으로 접근했고 다시 1차선으로 옮

겨운 뒤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버스가 SUV에 근접하지만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이 부분에서 버스가 SUV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 SUV와 접촉한 버스는 2차로로 다시 돌아온 뒤 좌우로 휘청휘청 거리며 200여m를 달렸다.

1차선과 2차선을 넘나들며 사실상 곡예운전을 한 셈이다.

이어 가드레일을 충돌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2초간 가로수, 밭이 연이어 찍힌 뒤 끊겼다. 충돌 뒤 중심이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에 충격할 때까지 30m 가량 궤적의 스키드 마크도 현장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최초 충돌이 왜 일어났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측량 기록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건강 이상, 졸음·음

주운전 여부, 최초 충격 지점, 흔적, 속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사망자 유족들은 어르신 노동력 착취 등 이번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밝혀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기도 했다.

가족 김기중(51)씨는 “버스 기사는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는 시골 어르신들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고 버스 운전자 알선으로 숨진 어머니(75)가 평소에도 발일을 하러 다니셨고,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며 “어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은 점심 30분, 10분씩 두 차례 새잠, 편도 30분 이내인 버스 이동을 제외한 모든 시간 발에서 일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일당 7만5000원을 받으면

버스 운전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로 1만5000원을 떼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받겠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들은 무허가 영업과 상관없이 사고버스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버스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불법 영업을 했지만, 운전자가 별도 보험금을 내고 특별계약을 맺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계약된 보험에 따라 사망자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치료비를 지급한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총각무 수확 작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미니버스(탑승자 15명)와 SUV 승용차(탑승자 4명)가 충돌해 미니버스 운전자 이모(72)씨 등 버스 탑승객 8명이 숨지고, 나머지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품질검사 시험업체 선정 대가 ‘뒤틀’ 60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품질검사 시험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37개 건설사 품질관리실장 A(40)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제)로 건설사 품질검사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건설사 품질시험 담당자로 있으면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

월까지 이들 업체에 25억원 상당의 건설사 품질 시험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업체에 지급한 품질 시험비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닭·개에게 좋다는 말 믿고 텃밭서 양귀비 재배했다가 ‘아햏햏’



“닭과 개의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60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서행.”

○2일 전북 입실경찰청에 따르면 최모(63)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입실군 입실읍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96

그루를 재배했다는 것.

○“처음 보는 이상한 꽃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청에 불합한 최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키우는 닭과 개에게 양귀비를 먹이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심었다”며 서처를 호소.

【정음=박기삼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2억 8천 (용 3억5천 가능)

- 1.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2.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 3.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건물 매매

월산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매가 : 22억 (용 1억 보 1억4천)

- 1.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 2.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 3.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5)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토 73평, 건161평, 감정가 6억3천8백 → 최저 6억3천8백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정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6) 북구 문흥동 (3층 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3억6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7) 북구 운암동 (2층 상가주택) 토 37평, 건42평 (사강정보대 1분)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4) 화순 도곡면(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정가 37억 → 최저가 13억4천	8)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4천
	9) 서구 내방동 (4층 상가주택) 감정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1)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A.P.T	주택	토지,기타
1) 서구 용암동 우오아파트 (2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6) 북구 용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8천	10) 광산구 허남동 (대지)107평, 감정가 10억5천 → 최저 10억5천
2) 서구 내방동 배동중(아파트)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7) 광산구 월계동 (2층주택) 토지 88평, 건물 78평,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11) 서구 용암동 (토지) 1,000평, 감정가 6억 → 최저 3억9천
3) 서구 화정동 대우아파트 (2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8)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0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12) 북구 용암동 (토지) 200평, 감정가 1억2천5백 → 최저 1억2천5백
4) 광산구 쌍봉동 산기부영 (2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9) 북구 용암동 토지 37평, 건물 28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13) 동구 학동 (토지) 102평, 감정가 1억5천 → 최저가 1억
5) 동구 용암동 관안마을 (2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 1) 기초실천반 (경매기초 + 기본실천)
- 2)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3) 무료반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운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턴트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